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2월 29일(금) (음력 11월 12일) Пятница 29 декабря 2017 г. № 50(11676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할린 주정부청사 앞.

(이예식기자 촬영)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밝고 즐거운 명절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 기쁜 날을 전통적으로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물어가는 해에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모든 성공은 우리들이 함께 한 노력의 열매이고 때로는 아주 힘들었던 노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사할린 한인 여러분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의 행복, 건강, 사랑, 안녕과 성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박순옥



Дорогие земля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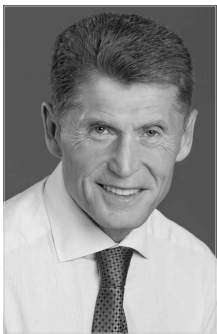
Считанные дни остаются до старта Нового года. Торопясь завершить неотложные дела уходящего 2017-го, мы настраиваемся на праздничную волну, строим новые планы, связываем добрые надежды с грядущим годом. Каким он будет? Это во многом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нас – от наших усилий и стараний, деловой энергии и труда,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и и умения достигать цели. Волшебный новогодний праздник не подарит нам волшебную палочку, которая бы избавила нас от проблем, добрых перемен нам придется добиваться самим.

Желаю всем вам счасть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благополучия, сердечного тепла и любви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Побольше радости, приятных сюрпризов и чудес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С уважением,

Светлана Иванов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женского союза «Надежда России».

친애하는 여러분!



가장 밝고 좋은 명절인 새해와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들을 전 연령층이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이 명절을 사할린의 주민들이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과 더 자주 만나고,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고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올 2017년 우리 주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할린주 설립 70주년을 기념했고 사할린주두마 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 경제와 사회 분야들의 개발에 있어 대규모 사업을 실현시켰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개선에 따른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출생률의 증가입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인구 유출이 감소되었고 출생률이 증가하며 평균수명도 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은 더욱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계획의 실현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받아들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가면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질적인 성장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

존경하는 사할린 한인동포, 재외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해는 우리 재외국민과 사할린 동포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70여 명의 우리 재외국민은 사할린 재외투표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8월에는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처음으로 '사할린 동포'가 언급되어 사할린과 한국의 3만 여 동포들에게 큰 감동과 기대를 준 바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9월에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표제로 동포 초청 간담회를 마련하여, 1세 어르신(장용당사자) 세분을 포함한 사할린 동포대표단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해자 추모비'와 코르사코프 '망향의 탑'이 건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기에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이 우리 동포들의 가슴에 더욱 뜻 깊게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일제에 의한 사할린으로의 본격적인 강제동원이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반세기 동안 척박한 동토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린 우리 조상과 동포들 덕분에 현재 사할린 한인의 위상과 든든한 한-사할린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관광,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한-사할린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재외국민과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 만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영사출장소 소장 황명희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имите мои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Христовым!

Эт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и всеми любимые праздники объединяют нас, наполняют хорошим настроением и светлыми надеждами. Пусть Новый, 2018 год откроет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порадует незабываемыми событиями, исполнит все планы и начинания! Пусть в ваших домах всегда звенит детский смех, живет радость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Пусть в любую погоду вас согревает поддержка близких!



Юрий Цой,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또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후원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라직스>치과병원과 <사호콤> 회사, 고국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들, 동탄라이온스클럽, 대만 설운창 유학생, 사할린주한인회, 주노인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김수만 부회장을 비롯 모스크바 사할린한국인연합회, 킨(지구촌동포연대),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 본 신문 네이버 블럭을 운영하는 정성훈 감독, 이철수 판화가님, 이철주 문화기획자 등, 러시아의 유일한 한민족지를 유지하는 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귀책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고 화목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새해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금)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연대 강화와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정부 재외동포 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됐던 해외의 고려인 동포, 해외 한인입양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동포를 말한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한인입양인과 관련해서는 '뿌리 찾기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국적 미취득의 한인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



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나라로 재외동포가 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하다"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물론 재외동포마다 해외에 나가 살게 된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뭉뚱그려져 재외동포로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며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되도록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또 대한민국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재외동포 정책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민간위

원과 10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8명(임기 '17.12.22-'19.12.2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도 있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사할린 1세 잔류 한인 건강검진과 진료 문제, 지원 문제 등을 발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그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천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순옥 회장이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게 된 사할린 지방한인단체와 모스크바 사할린 한인연합회 등에서 박 회장에 축하를 보내며 사할린 대표가 고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코르사코브 학생들에게 새해 선물 전달

약 15년간 사할린 학생 지원사업(모국 연수, 사할린에서의 청소년 행사·캠프 조직)을 해온 동북아청소년협의회(이사장 김연고, 한국 구미)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올해 좋은 인연을 맺은 코르사코브한인회(회장 이태출)에 어린이들을 위한 새해 선물을 준비했다.



코르사코브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 선물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과 시한인회 소속 사물놀이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이모저모

문예·과학 후원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억 루블리 지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4회 <도시의 선행>과 <올해의 성취> 콩쿠르의 연례 시상식이 이뤄졌다.

2017년에 주중앙도시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에게 후원을 하고 사회적 주요 기획을 주도한 약 30명의 회사 대표들과 인물들이 시문화회관 <로지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꽃다발과 축하의 인사를 받기 위해 연신 무대에 올랐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올해 사회적 목적을 대상으로 한 기업, 사회단체와 특별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지자체의 발전에 약 2억 루블리를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선행>콩쿠르의 우승자 명단 중 <사회적 승인>부문에서는 <로드니에 오스트로와(고향 섬들)> 지역재단(이사장 강 알렉산드르), <데뷰>부문에서는 <로스클라스>유한회사(사장 최 나체즈다), <선행의 마스터>부문에서는 <프로스토르>유한회사(대표이사 블라지미르 수프론), <사회적 협력>부문에서는 <스트로이-알리안스>회사(대표이사 고문 알렉산드르 샤리폴린), <선함이 세상을 구한다>부문에서는 <자유 음악가들> 비영리단체(이사장 아르세니 바틀지크), <시민들의 감사>부문에서는 이완 산자르브, <스포츠 도시>부문에서는 이완 부타코브, <문예·과학 후원자>부문에서는 <엑손 뵈체가스 리미테드>(사장 스티븐 바트), <안전은 중요하다>부문에서는 <사할린 에너지>(대표이사 로만 다쉬코브)가 수상했다.

주행정부는 도시의 사회적 주요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에 나선 회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이날 영재들과 새로운 이름들을 공개하는 <올해의 성취> 기획의 우승자 시상식도 있었다. 이 콩쿠르는 이미 3번째 개최되었는데 직접 시민들이 참가자와 우승자들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연극과 공연으로 이어졌다.

메ценаты помог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на 200 млн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XIV ежегодная церемония чествова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города» и «Успех года».

На сцену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за дипломами, цвета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поднялись около 3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и частных лиц, в течение 2017 года оказывавших спонсорскую помощь социаль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его жителям, а также ставшие инициаторами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бизнес,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горожане 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развитие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чти 200 млн рублей.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города» стали в номин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президент Александр Кан), «Дебют» - ООО «Росскласс» (директор Надежда Цой), «Мастер добрых дел» - ООО «Простор»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ладимир Супрун), «Социальный партнер» - ООО «Строй-Альянс» (совет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ин), «Доброта спасет мир» - некоммер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ольные музыканты»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

вета Арсений Вятржик),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орожан» - Иван Санжаров,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 Иван Бутаков, «Меценат» -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президент Стивен Батт),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важно» -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оман Даш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кже поощрила компании за участие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блем города и активную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Были также награждены победители 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 открывающего новые имена и дарования. Он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участник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горожане определяют сами.

Официальн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должил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и концерт.

사할린 아이들의 편지 100여 통 추위할아버지에게 전달

좋은 전통을 따라 유즈노사할린스크 693020 우체국에는 12월 초에 추위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새해 편지, 그림과 다채로운 엽서를 위한 특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우편물을 접수했다. 추위할아버지가 일년내내 거주하며 해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영접하는 이곳은 월고그라드주 웰리코우스튜그 구역에 자리하고 있다. 추위할아버지의 맥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추위할아버지의 답장 우편물은 국내 각 지역별로 구분되어 자루에 담겨져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마술사의 소재지로 배송된다. 주소를 올바르게 써서 보낸 사람들은 추위할아버지의 답장을 받게 된다고 <러시아 우체국>회사 홍보실은 전했다.

사할린 아이들은 편지 100여 통을 보냈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결산회의에서

올해는 많은 사업을 해왔다

한글학교·노인정 지속 운영,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 의원 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가 등

지난 2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건물에서 시한인회 결산회의가 소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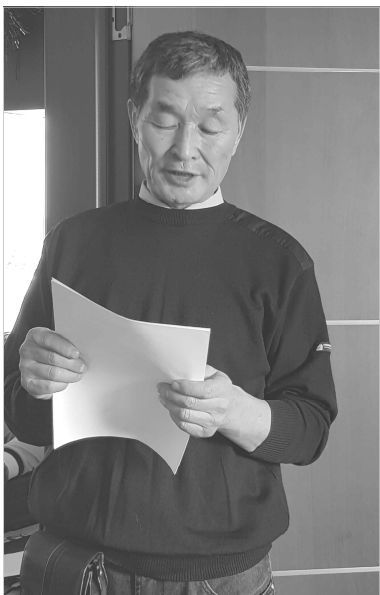
회의 의정에는 시한인회 1년 사업보고, 감사위원회의 재정보고, 시한인회 운영위 위원 보궐 선거, 시한인회 정관 변경사항 추가 문제와 기타 문제가 올랐다.

시한인회 총 회원 108명 가운데 이날 회의에는 63명이 참석했다.

회의 의장으로는 안영수, 서기로는 이봉율이 선출되었다.

회의 첫 순서로 시한인회 립종환 회장이 본회 1년간 사업을 자세히 보고했다.

보고에서 단체는 2017년에



많은 사업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노인정 활동, 주한인회와 시한인회 정례 행사 참가 등, 그 외에도 올해는 다른 형태의 활동을 추진한 가운데 주두마, 시두마 선거캠페인 참가, 한인디아스포라 사회지원 문제 해결, 본회 회원들의 활동적 휴식 조직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결산 선거기간에는 운영위원회의가 10번 소집되었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17번이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들놀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 시민행진에 참가와 <대구의 밤> 행사, <제2회 사할린 아리랑제>를 적극적으로 조직 진행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들은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준비했다고 립 회장은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행사는 협력단체들인 <소망>어린이창작협력회(회장 김춘경)와 주한인여성회(회장 김혜철)와의 협조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활동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세종>한글학교 수업에는 김춘경 선생과 박영자 선생, 박 선생의 사직 후 김정길 선생의 노고가 컸다. 현재 한글수업에는 3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유아들의 수업도 계속 되고 있고 민속무용그룹도 조직되었으며

한국노래교실 조직과 사물놀이 그룹 수업도 준비 중에 있다.

노인정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다. 보통 한 달에 두 번 시한인회 건물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시한인회 여성들이 준비한 밥상을 받으며 서로 교제할 시간을 가진다. 그 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놀이, 노래방을 준비하고 차세대, 한국 손님들과 만남의 자리도 준비한다. 현재 시한인회 회원인 공 타치아나(시두마 의원 보좌관)는 사회복지 특혜에 대한 정보를 전하며 설명했다. 유 타치아나는 어르신들의 연령에 맞는 치료체조를 실시했고 또한 <대구의 밤> 행사 일환으로 어르신들은 타라나이로 소풍을 즐길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점심상 차리기에는 시한인회 여성분들만 아니라 주한인여성회 회원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글레고르스크에서의 공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립 회장은 지방한인들이 자체 지역 주민들과만 협력해오다가 다른 지역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그는 특히 주여성회 최정순 초대회장의 기여가 컸다고 했다.

최정순 초대회장은 9월에 한 들놀이조직에도 협조했다고 립종환 회장은 덧붙였다. 이번에 들놀이는 야외가 아닌 시한인회 건물 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어르

신들을 위해 꾸민 상을 차려놓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무궁화>중창단과 유아교실 학생들(담당 김춘경),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담당 박영자), 인기 동포가수 등이 참여한 공연이 열렸다.

립 회장이 강조한 또 하나는 시한인회는 동포들 속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다른 민족 단체와도 보다 많은 협력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한인회는 주두마 의원 선거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결과 시한인회가 지지한 후보들이 당선되었다고 립 회장은 보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2층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오랜 된 건물이라 최근에 시한인회는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었다. 올해는 수리 범위가 커져 안에는 땀질하고 벽지를 바꾸고, 지하와 1층에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건물 외관 보수 작업을 했다. 출입문과 발코니의 창문도 바꾸었다. 수리작업에는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다. 그중 정해성 씨, 김준일 씨가 있고 그 외에 이용주 개인 사업가, 강영구 개인 사업가, <림코>회사, <모멘트-13>회사, 최 유리 주두마 의원, 웨.로그워노브, 엠.트로피모브가 시한인회를 후원했다.

이날 립종환 회장은 그간 열심히 활동해온 협력자, 후원자, 회원들의 이름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

재정 내용을 보고한 니시하라 스웨틀라나 감사위원장은 자세히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재정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렸다.

회의에서는 시한인회 사업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날 시한인회 운영위 위원들을 추가 선출하고 본회 정관에 사회적 사업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기로 했다.

기타 사항에서는 지역 간 사할린한인연합회(모스크바)에서 사할린한인 2세의 한국국적 취득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단체회원으로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로의 가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립종환 회장은 알렸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 문제는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잘 논의하여 시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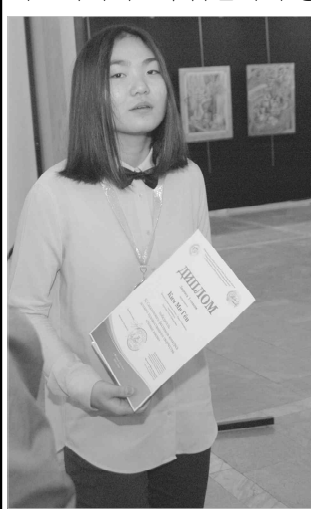
시한인회 회의에 앞서 이날 노인정을 찾아 모인 36명의 할머니들을 위해 새해맞이 명절상이 차려지고 축하와 함께 명절 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작별인사로는 저물어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서로에게 기원했다.

(취재: 배순신기자)

<자연을 함께 보호할 겁니다!> 그림 전시로 <새로운 이름들> 축제 개최

11회 <새로운 이름> 사할린 청소년예술창작축제-콩쿠르(회화, 디자인 부문)가 지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예술 영재>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축제는 사할린주 문화부와 주문화예술분야교육과학교수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된다.



축제의 역사는 벌써 22년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지역 간의 행사로 발돋움하면서 사할린문화예술 교육기관들을 포함한 하바롭스크 변경, 마가단주와 아무르주의 교육기관들의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출품했다.

"어린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서 축제는 진행되어 왔고 이제 참가자들의 영역을 넓혀 예술 영재들과 함께 교사들의 활동 경험의 보편화와 실제적 연구가 극동지역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교육과학교수법센터 엘레나 마노일렌코 센터장은 밝혔다.

제11회 <새로운 이름>축제에는 21개의 문화예술교육기관들을 대표하는 10세부터 22세까지의 예술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95명이 참가했다.



축제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자연을 함께 보호하겠습니다.>란 기획 전시로 막을 올렸다.

<새로운 이름들>제11회 축제-콩쿠르의 입선자들의 전시회는 고향 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이 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콩쿠르에서 우글레고르스크 <가르모니아>아동예술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미술학교, 오하예술학교의 학생들이 1위에 이름을 올렸고 2위와 3위에도 위의 학교들을 포함한 홈스크아동예술학교, 네벨스크아동예술학교, 사할린예술전문학교(예술폴레즈), 코르사코브아동예술학교, 마가단주 야고드노예촌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이 입선을 하게 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축제는 2018년 2월 16일에 막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경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미술학교 학생과 입선자들의 그림.

(취재: 이에식기자)

재외동포재단, 경기도교육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2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재외동포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협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우성 이사장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사업에 각종 네트워크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한다.

협약 범위는 ▲재외동포학생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상호 협력 ▲재외동포학생 모집·선발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공유 ▲재외한글학교 및 민족학교 교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자원 협력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세계 시민,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내 교원 등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추진 협력 등 5개 분야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재외동포 교육 사업에 오랜 노하우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재단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성 이사장은 "교육 사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에 있어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협업해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Уважаемые земляки и гости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Новый год самый добрый и любимый праздник, он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собирает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у семейного очаг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веру в милосердие и человеколюбие, несет в себе ожидание чуда.

Новый год - это время радостных ожиданий и светлых надежд. Мы встречаем этот праздник с верой в счастливые перемены, в то, что очередной год будет лучше, чем предыдущий.

Желаю вам добра, сердечного и душевного тепла, согласия и мира, удачи и счастья! Пусть в предстоящем году успех будет вашим постоянным спутником и принесет в ваш дом достаток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Здоровья вам и вашим близким!

Уверенности Вам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и исполнения желаний!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Пак Сун Ок стала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и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стала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и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данного комитета являетс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ленами - руково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10 чел.), а также 1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число которых вошла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18-о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и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Ли Нак Ена прошло в Сеуле 22 декабря. Перед началом засед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8-ми членам комитета -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в том числе и Пак Сун Ок.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до декабря 2019 г.

В ЮСМООК отчитались о работе за год

23 декабря, в суб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71) состоялось общее собрание членов да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где отчитались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год.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подробно озвучил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организации. Это —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луб бабушек», организация «Вечера дружбы с Тэгу» и 2-го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участие общества в выборной компании депутатов областного и городского уровн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друг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т.д.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ремонту 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обрании также был заслушан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о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прошли выборы в правле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став и пр.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была оценена положительно.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мет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Рождество,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и выходным днём. Во всех христианских церквях с раннего утра прошли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службы. Службу в Мёндонском соборе в Сеуле – главном хр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атоликов – провёл архиепископ Сеульский Эндрю Ём Су Чжон. Обращаясь к верующи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люди должны уважать жизнь других, быть скромными, сочувствовать чужому горю и разделять чужую боль. Он помолился за то, чтобы наименее социально защищённые жители страны, а также жител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и любовь и милость от Иисуса Христа. Корейский совет христианских церквей обнародовал Рождественское послание от имени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совета пастора Ли Хон Чжона. Корейская христиа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и Корейский христианский союз также обнародовали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послания от имени своих председателе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ть в конце года в экстренном режим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Нак Ён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одготовить экстре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всех ведомств в конце года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ыступая во вторник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выразил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близким жертв пожара в городе Чэ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Он призвал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едомства провести подготовку к обеспечению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Ли Нак Ён также дал указ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у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провести работу с промышленными объектами,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чрезмерной загруженности рабочих в конце года. Работать в усиленном режиме он призвал и друг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МИД, оборонное ведом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посетят лидеры 43 стран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оящих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бывают лидеры 43 стран ми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комитете Игр.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ближе к Олимпиаде эта цифра вырастет и превысит 45 человек. Именно столько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 посетили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 в Рио-де-Жанейро в 2016 году. Что кас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а стран-участниц, т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явки прислали 92 страны. Это на четыре страны больше, чем во врем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Сочи в 2014 году, когда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участниц. Подготовка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Пхёнчхане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а. Олимпийская деревня готова к приёму спортсменов, а стадионы – к проведению соревнований.

Эксперты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призвали к проведению мирно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72 общепризнанных эксперта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в том числе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о Гон и поэт Ко Ын, призвали к проведению мирно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потребовали от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екращения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Об этом они заявили 26 декабря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е. Он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редстоящие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 2018 году, в Токио в 2020 году и в Пекине в 2022 году являются уникальным шансом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мира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заявл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ситуации постоянного нараст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угрозы,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должны немедленно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без каких-либо условий.

(RKI)



ПЛАН новогодн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 01 по 08 января 2018 года

Дата и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01 января 14:00-17:00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гостях у Деда Мороза».	Дача Деда Мороза - д/с «Теремо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2)
02-08 января 11:00-16:00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гостях у Деда Мороза».	Дача Деда Мороза - д/с «Теремо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2)
02-08 января 14:00	Новогодние игровые программы.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2,03,04 января 13:00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игров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овогод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Изумрудный город».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2,03,04 января 18:00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концертные программы «С Новым годом».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5,06,08 января 13:00	Спортивная эстафета для детей «Догоняй-Ка».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5,06,07 января 14:00	Новогодний сказочный квест «Там на неведомых дорожках»	Территория парка. Сбор у озера «Нижнее».
05 января 18:00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коро Рождество».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6 января 18:00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Колядки».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7 января 13:00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каникулы».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7 января 16:00	Новогодний сказочный квест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сказкам».	Территория парка. Сбор у скульптуры космонавта.
07 января 18:00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гулянья».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08 января 11:00 часов	Зимний фестиваль «Если снежинка не растает»: Костюмированное шествие с домашними питомцами.	Дог парк.
14:00 часов	Костюмированные коман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на льду.	Каток на роликовой площадк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достоверные эксклюзивные новост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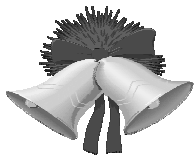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С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Гороскоп на 2018 год по знакам зодиака и по году рождения – это великолеп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глянуть в своё будущее и найт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мы постоянно задаём самим себе. На какой шаг решиться, с какими людьми построить деловые и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как не проворонить свою судьбу? Возможно, эти ответы будут не прямыми, а лишь косвенными, однако именно они станут подсказкой для наших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для кого-то гороскоп 2018 года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равить свои ошибки и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Что сулит нам год Желтой Земляной Собаки?

Космическая энергия и расположение звёзд на небе всегда таило в себе нечт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и запретное дл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разума. И всё же человек сумел разглядеть тайные знаки, которые звёзды посылали ему. Одним из тайных знаков станет предстоящий год, который каждый ждёт с нетерпением. Каждому хочется узнать, каких жизненных поворотов ему ожидат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гороскоп 2018 года дл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 это своеобразное открытие.

Но прежде чем мы перейдём к самому главному, давайте вспомним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Собаки, Красного Огненного Петуха. Он ведь пока не собирается нас покидать, и было бы несправедливо не воздать ему честь. Его правление можно с пол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назвать мудрым и решительным. Где-то он был взбалмошным, где-то вздорным, а где-то придирчивым. Тихим и спокойным его точно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На то он и Петух, чтобы петушиться. Наверное, стоит простить ему все его вздорности, ведь как-никак его слава слишком яркая, чтобы так быстро потухнуть. В ночь на 16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он торжественно поклонится нам на прощание и улетит наверное туда, где его будет ждать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и вот только тогда Желтая Земляная Собака начнёт своё законное правление.

Собака сама по себе спокойная, не может усидеть на месте, вечно ей надо быть и там, и здесь, что-то унюхать, за кем-то понаблюдать, на кого-то гавкнуть, кого-то отпугнуть. Кажется, что покоя нам точно не будет.

Однако не стоит паниковать раньше времени. Собака всё-таки преданная, и своих друзей в беде не оставит, а наоборот, возьмёт под защиту.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огноз на 2018 для каждого знака зодиака такой:

можно начинать дела любой важности и сложности; верно следовать своим убеждениям; не сходить с намеченного пути.

Собака с радостью поддержит вас в своих начинаниях.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и о том, что стихия Собаки – это земля, и сама она с благородством чтит старые добрые традиции. Поэтому важно в этот год не отступать от своих принципов и если надо, то даже сражаться за них.

Какие-либо перемены – это не для Земляной Собаки, она их не любит и не терпит. Однако же для своих подопечных она сделает всё, чтобы они смогли жить счастливо и хорошо,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может каждому благоустроить своё жилищ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на будет всю зиму наводить порядок, избавляться от хаоса, который оставил для неё взбалмошный Петушок. И будьте уверены, что наведёт. К весне порядок восторжествует. В это время можно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то, что желтый цвет, – своеобразный символ года, привлечёт удачу в финансовых делах. Кто трудолюбив и настойчив, тот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вышение по службе или же найдёт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ую работу. А кто над чем-то старательно работал, получит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Уж Собака об этом позаботится.

Гороскоп 2018 года предрекает, что жёлтый цвет ещё символизирует энергию Солнца, которая благотворно влияет на человек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грядущем году всем велено радоваться жизни и улыбаться. Даже меланхоликам не избежать такого неоспоримого и жизнерадостного указа верховной правительницы этого года.

Известно, что Собака не любит роскошь, ей хватает маленького, но уютного местечка.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и от нас она будет ждать того же. Она просто будет бескорыстно радоваться за нас, если мы окружим себя комфортом, облачимся в новые красивые вещи и устроим свою жизнь так, как того хочется нам самим, пусть даже на широкую ногу. Так что сдерживать себя в чём-то не стоит.

В этом году нам всем желательно быть честными, дружелюбными и бескорыстными. Не стоит лицемерить, даже перед лицом своего врага или конкурента, – Собака этого не потерпит. Её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нам пол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от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мошенничеств.

Собака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ая, поэтому в этом году вы может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тать вам верными друзьями.

А ещё каждому в этом году захочется духовно развиваться. Однако стоит помнить одну важную вещь – не стоит тратить свои силы на бессмысленные планы. Всё должно быть тщательно спланировано и взвешенно.

Что нас ждёт в деловой сфере?

Как говорилось выше, каждый из нас, кто будет стараться чего-то достичь, обязательно достигнет этого. Однако Собака хочет, чтобы мы подходили к своему делу творчески и с душой. Именно тогда у нас всё получится. Просто надо побольше проявлять фантазии. Иногда это даже забавно.

Если, к примеру, вы работаете пекарем, почему бы вам не попробовать сделать из своей выпечки настоящее произведение искусства – торт в виде пиратского острова? А если вы трудитесь кассиром в магазине, почему бы вам каждый раз при виде очередного покупателя не произносить вежливые и довольно приятные слова: «Здравствуйте, барышня!» или «До свидания, капитан Чёрная Борода!» Это вызовет улыбку и поднимет настроение не только самому покупателю, но и вам самим. Не правда ли? Наверное, попробовать стоит.

Люд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профессий будут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обилием различных перспектив; интерес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замыслами; и вообще перед ними откроются все дороги.

Важно лишь не упускать шанс. А главное, кто ещё не обзавёлся делом, Собака не останется в стороне смотреть, как вы ленитесь, и быстро найдёт вам дело по душе.

Здоровье и вредные привычки

Что касается здоровья, в этом году мало кто будет подвергаться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заболеваниям. Собака наделит каждого бодростью духа и закалит,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 Нужно будет тольк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за который она рьяно ратует.

А вот что касается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 алкоголя и спиртного, то лучше этим не баловаться, иначе можно разозлить хозяйку года.

Что нас ждёт в любви?

Гороскоп на 2018 год в любовной сфере сулит нам много радостей и неожиданностей. Те, кто уже обзавёлся своей семьёй, будут счастливы, а свободны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обретут свою вторую половинку. Причём этот год буд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сыщен встречами и свиданиями. Так что пора готовиться. Примечательно то, что Собака любит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умере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поэтому роман, основанный не на пылких чувствах, а на взаимном доверии, уважении и нежной привязанности имеет все шансы на успех.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будет много свадебных церемоний. Собака любит, когда её окружает любовь и забота, поэтому сделает так, что людей будет окружать тоже самое. Она намерена самозабвенно сражаться с тоской и одиночеством. Причём союзы, созданные в год правления Жёлтой Земляной Собаки, будут крепкими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ми. Дети родятся здоровыми и счастливыми и найдут своё место в жизни.

Однако нужно учитывать, что Собака не терпит слишком строптивых и задиристых, и если вы, по непонятно каким причинам, станете бунтовать, то ваши близкие ополчатся на вас. Будьте уверены, Собака поможет им охладить ваш пыл. Так что старайтесь избегать конфликтов, иначе ваша семейная жизнь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сходить на нет.

Что кого ждёт по знакам зодиака и по году рождения?

Овнам Жёлтая Собака обещает много различных заманчивых перспектив, от которых отказаться им будет крайне сложно. Хотя Овны и будут теряться, однако всё-таки выберут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В отличие от слишком занятых своим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Овнов, размеренные Тельцы будут спокойно переоценивать свои мысли и поступки. Перед ними может стать нелёгкий выбор – семья или карьера.

Близнецы будут готовиться к предстоящим переменам на службе, а **Раки** только удивятся своей чрезвычайной активностью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Львы забудут на время о своей гордости и своём величии и со всем присущим им спокойствием примут собственные недостатки. **Девам** же придётся нелегко, ведь Жёлтая Собака готовит им много трудностей, а к некоторым из них пронизательные Девы не будут готовы. Так что характер закалить придётся вдвойне. Непросто будет и **Весам**. Друзья могут оставить их одних в неподходящий момент со своими страхами 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И вот тогда Весы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зочаруются в своих друзьях.

Для **Скорпионов** ничего особенного в предстоящем году не произойдёт. Их жизнь как текла, так и потечёт дальше. Немного однообразно, но зато без лишнего дрязг.

Стрельцы проявят новые черты своего характера: эгоистичность и сдержанность. Пусть многие будут недовольны подобными переменами, которые произойдут со Стрельцами, зато они сами теперь смогут извлечь из этого выгоду,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Например,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е. А это немаловажно.

Козероги станут намного общительней, чем были раньше, а **Водолеи** проведут предстоящий год так легко и беззаботно, что им позавидуют многие другие знаки зодиака. А вот осторожным **Рыбам** в предстоящем году придётся уступать. И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ы, но и любовной.

Восточный гороскоп на 2018 год по году рождения

Гороскоп на грядущий 2018 год по году рождения раскроет один большой секр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дачу поймают родившиеся в год Собак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о произошло, следует бросить все свои силы на исполнение задуманных желаний, проявить стойкость и решительность, и тогда всё свершится. А главное – не упускать нужного момента, а нужный момент Собака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кинет.

Змеям, Кроликам и Крысам придётся поработать вдвойне, чтобы Собака тоже подарила им удачу. Их,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покровительница захочет проверить на прочность больше всего. Не стоит её разочаровывать.

Крысам не стоит проявлять нечестн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ругим людям, иначе Собака очень разозлится на ни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ужно вести себя согласно моральным принципам и стремиться к созиданию.

Кабаны с хозяйкой года будут ладить, это бесспорно. Год для них пройдёт тихо и спокойно, а главное – без лишней суеты.

Свиньям с Тиграми Собака приготовила много неожиданных поворотов. Они окажутся в самом эпицентре 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ы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в корне изменить их дальнейшую жизнь. К этому следует подготовиться.

Обезьяны, Драконы и Быки буд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тихой гаванью. Для них наступит период умиротворения и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своих жизнен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Иногда ведь полезно расслабиться и просто понаблюдать за жизнью, как за кадрами на экране телевизора. Им это удастся вполне.

Такое же спокойствие уготовано рождённым в год **Лошади и Козы**. Похоже, что они наработались вдвой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еперь пришло время заняться только собой и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Петухам уготована самая настоящая встряска. Вот уж кому некогда даже будет присесть, так это им. Но это еще не все – произойдёт какой-то важный переворот, который повлияет на их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Наверняка этот гороскоп по году рождения и знаку зодиака приоткрыл завесу тайны, что готовит нам в грядущем году Жёлтая Земляная Собака. Одним покажется, что она может обделить их своим вниманием, а другие будут радоваться тому, что она им приготовит. Однако важно учитывать од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обака ждёт от нас взвешенных поступков,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людям и максимум трудолюбия. И если следовать этим немаловажным правилам, тогда ваша жизнь в году Жёлтой Земляной Собаки станет солнечной и благотворно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зимний сезон лучше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склоне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долгож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рта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на лучшем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Гора обалденная! - оценил, резко затормозив после спуска, юный горнолыжник. И для большей убедительности показал большой палец.

- Я прилетел на Сахалин по делам, повезло, что поездка совпала с открытием зимнего сезона, - поделился сноубордист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ван Косяченко. - Прежде слышал разговоры, что снега в декабре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не будет. Но вышло иначе. Гора, трассы - отличные, снега много навалило. Это стало для меня шикарным бонусом. Теперь собираюсь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еще в феврале, специально, чтобы покататься.

- Недавно муж узнал от своих знакомых, что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ыпало много снега, и мы не смогли удержаться, - рассказала хабаровчанка Ольга Ельчинская. - Взяли на работ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 счет отпуска и вчера прилет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ереночевали в гостинице и с утра на гору. Мы здесь уже бывали, но в этом году все намного круче - и сами трассы, снег, и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ы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 рулит!

Притоку туристов, желающих покататься на склонах сахалинских гор, способствует тарифная политик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Перелет на остров из Хабаровска ил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дешевел почти вдвое. В прошлом сезоне билет туда и обратно обходился в 14000-15000 рублей. В этом - 7400 рублей (Владивосто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ладивосток) и 8200 рублей (Хабаров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абаровск). Есть у туристов и еще одна возможность сэкономить. 27 декабря завершится акция «Аэрофлот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можно с большой скидкой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полеты с 15 января по 20 апреля 2018 года. А на Сахалине к услугам гостей - гостиницы на разный вкус и кошелек, от скромных гостевых домов до четырехзвездочных отелей.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ки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бус доставляет гостей до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 Я катался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нашей страны, - поделился наблюдением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Артем Пак. - И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ы, наверное, 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атания.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роводятся серьез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Горнолыжники и сноубордисты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зываются о качестве подготовки склонов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Сегодня, подтверждают мнение спортсменов эксперты, «Горному воздуху» нет равных в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хвалы по поводу состояния трасс не случайны. В теплое время года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зимние месяцы стали праздником спорта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За лето выполнили профилирование склонов, убрали камни и другие препятствия,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трасс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риведены в состояние, близкое к идеальному. Помогла и погода. На Большевику уже выпало два метра снега. Поэтому удалось открыть сезон на неделю раньше, чем в прежние годы, и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се трассы.

Между тем, нача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 Впереди поклонников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дет еще одно яркое событие, - сказал со сцены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 В новом сезон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впервые выйдет за привычные границ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В работу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новые трассы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десяти километров на соседней горе Красной.

Развити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улучшением действующих трасс и прокладкой новых.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комплекса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Здесь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рокат горнолыж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а также магазины, ресторан, кассы, камера хранения и видеозал с детской игровой зоной.

Кульминацие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стал массовый спуск. Первыми с горы стартовали похожие на ярких экзотических птенцов малыши-горнолыжники из клубов «Неваляшки» и «Чемпион». Вслед за ними спустились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и другие посетител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а Сахалине горными лыжами или сноубордом занимаются в буквальном смысле и стар и млад.

- У нас было уже четыре тренировки,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трехлетнего горнолыжника Миши Сергеева. - Сыну нравятся горные лыжи. Мы с мужем сами занимаем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и решили приобщить сына. Отдых на горе помог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физическую форму, создает прекр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Не представляю, как можно не кататься, когда вблизи города рабо-

тает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 прекрасными горнолыжными трассам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шли на гору всей семьей,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на Швецова. - Кто выбрал горные лыжи, кто сноуборд. И мы очень рады началу нового сезона. Снег, изуми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трассы, хорошая погода - то, что нужно для отдыха.

Сезон открыт. Впереди у гостей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 масса интересных событий. 2 января с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одновременно спустятся десятки Дедов Морозов и Снегурочек. Со 2 по 7 января каждый вечер состоится шоу «Зимний шепот звезд». 6 января в ночь перед Рождеством гости комплекса узнают, кто круче - горнолыжник или сноубордист. На 7 января назначен детский снежный карнавал.

Для справк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т в 1960 году. Здесь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ской сборной готовились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1972 года в Саппоро. В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е годы комплекс забросили. Его возрождение нача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уже в XXI веке.

Сегод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 центр одноим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Здесь создается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ассчитанный как н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на турист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из-за рубежа.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обустроен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она катан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2020 году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оявится свыше 50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оснежением, шесть новых канатных дорог.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возведут две гостиницы, горнолыжную деревню, два водноспортивных центра,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японский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25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комплекса составит 6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год. А ежегод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превысят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семирный банк признал Сахалин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по динамике развития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стране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инанс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али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регио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провели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для областных и райо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Тем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примен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ах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миров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актик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Систе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ет в 47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Ее су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граждане сами выбирают проекты, на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расходоваться средства бюджета. Чаще всего эт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и скверов,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ортивных и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установка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С 7 апреля 2016 года Всемирный банк реализует соглашение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финансов РФ о развитии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программе в 2017 году. З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срок уже реализовано 15 проектов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ей на общих собраниях и облас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д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каждый. Например, в селе Никольском приоритет отдали установке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В Медвежьем большинстве граждан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колодцев. В селах Поречье, Лесогорское и Бошняков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читали необходимым обустроить зоны отдыха. В Краснополье и Ольшанке -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В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мутово, Луговое и Синегорск открыты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В Дальнем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хоккейный корт. 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детям подарили игровую площадку.

Еще один район Сахалина - Томаринский - запустил муницип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селе Черемшанка по решению жителей оборудовали детскую и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и. В Парусном - установили автобусную остановку. А в Пензенском к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теперь ведет новая дорога.

- Сначала люди со скепсисом отнеслись к нововведению. Некоторые и вовсе не верили, что от него будет польза, - поделился Сергей Киселев, учитель физкультуры школы села Пензенское, член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 Но уже на втором совещании,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проекты, было многолюдно. У жителей появилас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Озвучивалась масса предложений, из которых выбрали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последствии мы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ход работ, сотрудничали с подрядчиками, чтобы результат нас удовлетворил. Как и большинство селян, считаю, что механизм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 дл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глубинки. Граждан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аспределении средств бюджета. Деньги направляются по назначению - на самое важное. Все дела решаются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Глава томари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андр Кобелев считает, что новая система распределения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ла в районе граждан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Изменился и настрой у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на собрания, теперь он позитивный.

Посоветовавшись с людьм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ли в 2018 году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Парусном, поставить систему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библиотеку в Черемшанке.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ложить свои идеи,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их реализовать, появилась и у школьников. С эт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Островны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уже выдвинули более 100 инициатив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ремонту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Каждой школе, по решению совет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раво распорядиться бюджетом в размере д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Учащиеся томаринской школы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Площадь будущего». Одно из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оборудуют беспроводной сетью Wi-fi и розетками для бесплатной подзарядки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 Прошел всего год, как Сахалин начал внедрять систему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И уже сегодня у региона есть собственная состоявшаяся программа, есть конкр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 при самом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районах строятся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объекты. Мы также увидели прекрасные пример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кампани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жителям понять суть нововведения. То, над чем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Сахалин - это практика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ая впитала в себя лучш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пыт, - отметил Иван Шульг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по развитию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В 2018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на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ыделение 12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эти цели - это примерно в 4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треч с сахалинцами и курильчанами отобраны 68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етендуют на получение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Большинство голосов отдано з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сельских дорог,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ов и зон отдыха, ремонт объектов водоснабжения, установку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39 общественно-значимых инициатив готов поддержать бизнес.

- Работа с людьми на местах, учет их мнения при распределении бюджета - приорит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егодня. Прямое участие жителей в определении ключевых проблем изменит и их отношение к собственной роли в развитии территорий, укрепит доверие к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 подчеркну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 Мы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большого пути по внедрению системы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И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при участии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применим в регионе все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чтобы во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в бюджетный процесс. Это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500 юны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обрал губернаторская ел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ами праздника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главы региона стали школьники в возрасте 10-12 лет, которые достигли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учебе, спорте и творчестве. Впервые за пять лет на новогодн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Чехов-центре» прилетела группа детей с острова Итуруп.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школьнико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Новогодняя ел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области стала традиционной,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Мы, взрослые, по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праздник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Вместе с вами мы получаем за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и сил, желание творить, делиться с окружающими радостью.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 любимыми, радост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которые несут только добрые перемены, исполнение заветных желаний! Радуйте близких, меньше ссорьтесь, мальчики, не обижайте девочек, все верьте в себя. И пусть каждый день Нового года будет наполнен теплом и радостью!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 щучьему велению». Постановка погрузила школьников в атмосферу зимнего праздника, заставила сопереживать героям, поверить в добро и новогодние чудеса. Посл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ребята вместе со сказочными героями, Дедом Морозом и Снегурочкой водили хоровод вокруг елки.

По окончании праздника школьников ждали подарки со сладостями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Деда Мороза и лучшие ученики из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Для них подарки отправят самолета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8년 무술년(戊戌年)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狗)의 해(Year of the Dog)

2018년은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의로운 개띠 해로 활동성 뛰어난 개처럼 탁월한 활력으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발전하는 국운 상승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띠별 운세

♣ 2018년 쥐띠운세



84년생 충동적인 결정은 결국 후회할 일만 남기니 주의해야겠다. 72년생 쉽게 생각한 일에 의외의 함정이 있으니 잘 살펴라. 60년생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겠다. 남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48, 36년생 심상치 않은 기운을 무시하지 마라.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

운세지수 37%. 금전 40 건강 35 애정 35.

♣ 2018년 소띠운세



85년생 일을 위하여 손을 잡았으나 서로의 마음은 갈등이 심하다. 73년생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 마무리 할 것이 아직 많다. 61년생 모든 것이 생 각뿐일 때는 일보 후퇴해서 안전을 꾀하는 것이 길할 수 있다. 49년생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 것.

운세지수 36%. 금전 40 건강 35 애정 40

♣ 2018년 호랑이띠운세



86년생 정서가 불안해지고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74년생 긴 인생의 성과를 이 짧은 시간에 가늠할 수는 없다. 긴 안목으로 좀 더 참고 기다려 보라. 62년생 정에 치우치면 곤란하니 냉정히 처리해야 한다. 50, 38년생 내 코가 석자이니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다.

운세지수 38%. 금전 40 건강 35 애정 40

♣ 2018년 토끼띠운세



87년생 순간보다 먼 장래를 볼 때이다. 연인과 데이트하며 결론을 내리는 시기. 75년생 새로운 계획과 바람이 필요한 시기이다. 63년생 다음 단계를 생각하라. 계획을 세우면 무난하게 진행된다. 51년생 금전운이 들어온다. 너무 서두르거나 모든 일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운세지수 92%. 금전 90 건강 85 애정 95

♣ 2018년 용띠운세



88년생 좋은 일이 연결되거나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 76년생 더더서 답답했던 일에 진척이 있겠다.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한 후에 활용해야 한다. 64, 52년생 생각대로 모든 일이 전개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다. 40년생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운세지수 93%. 금전 90 건강 95 애정 95

♣ 2018년 뱀띠운세



89, 77년생 상처 입을 수 있으니 마음을 주지 마라. 65년생 뜻하지 않은 갈등에 휘말리기 쉬운 시기이니 주의. 53년생 무슨 일이건 집착하면 이루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 41년생 아직은 불투명한 일.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잘 확인하라.

운세지수 39%. 금전 45 건강 35 애정 40

♣ 2018년 말띠운세



90년생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주위와 협력해야 훨씬 수월하게 일이 풀린다. 78년생 중요한 때에 돈 문제가 속을 썩인다. 66, 54년생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극적이 되기 쉽다. 42년생 재물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돈에 연연하지 마라.

운세지수 48%. 금전 45 건강 40 애정 45.

♣ 2018년 양띠운세



91, 79년생 마음을 비우고 가정에 충실하자. 67년생 매사 서두르면 좋지 않음을 명심. 상황을 끝까지 확인할 것. 55년생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 것. 진취적인 태도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43년생 집에 있으면 심란하고 밖에 나가도 별 소득이 없다.

운세지수 37%. 금전 35 건강 40 애정 35

♣ 2018년 원숭이띠운세



92년생 드디어 좋은 상대가 나타난다. 80, 68년생 배포가 큰 사람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56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다. 44년생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기쁜 일이 있다. 우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운세지수 86%. 금전 85 건강 90 애정 85

♣ 2018년 닭띠운세



93년생 방심하지 마라. 라이벌이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81년생 친한 사람하고 다툼 일 있으니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처리하면 길하다. 69년생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나가면 의외의 성과를 볼 수 있다. 57년생 꾸물대면 실패한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 것. 45년생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음을 기약하라.

운세지수 57%. 금전 55 건강 60 애정 50

♣ 2018년 개띠운세



94, 82년생 슬기와 재치가 필요하다. 상대가 우울해 하더라도 마음을 잘 달래주어야 한다. 70년생 아직 포기할 일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라. 58년생 가능성이 있다. 단,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46, 34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식생활을 개선하면 아픈 것이 나아진다.

운세지수 56%. 금전 55 건강 55 애정 50

♣ 2018년 돼지띠운세



95, 83년생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이럴까 저럴까 구상 중이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71년생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9년생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47년생 자신의 결점은 솔직히 인정하라. 도움이 된다.

운세지수 73%. 금전 75 건강 70 애정 70.

출처: 인터넷. <http://honrim.tistory.com/623>
[혼림의블로그]

[우리말로 깨닫다]

놀이와 장난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보통 장난은 순우리말처럼 생각하지만 한자어 '작난(作亂)'에서 온 말로 알려지고 있다. 즉,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장난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장난이 끝난 후의 모습은 무척 복잡하다. 흥장난을 하고 들어온 아이의 옷을 생각해 보라. 엄마는 옷을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신발이며 양말이며 옷가지에서 흙이 한 움큼이다.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장난의 필수품은 장난감이다. 아이들을 다루기 가장 힘들 때가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극도로 집착한다.

놀고 나서 장난감을 잘 정리하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장난감을 잘 정리할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을지도 모른다. 장난이라는 게 그렇다. 장난은 어지럽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즐거운 것이다. 장난을 치고 나면 재미있다. 그런 점에서 장난은 놀이와 통한다.

놀이는 노는 것이면서 동시에 연습이기도 하다.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일을 미리 해 보는 교육인 셈이다. 아이들의 소꿉놀이가 대표적이다. 소꿉놀이를 통해 심각한 부부관계나 살림살이를 배우기도 한다. 육아도 소꿉놀이에 들어가 있다. 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보통 부모를 모방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소꿉놀이를 보며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동안 자신이 하였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것까지 연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놀이다. 아이들의 손에 칼, 활, 총이 들려 있다. 서로 죽이고 논다. 물론 진짜가 아니기에 깔깔거리기는 하지만 놀이가 연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점점 전쟁놀이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도 든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놀이가 가장 신나는 놀이였다. 집집마다 장난감 총과 칼이 있었다. 탱크와 폭격기도 중요한 장난감이었다. 그럼 술래잡기, 숨바꼭질은 무슨 연습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다.

놀이는 단순히 유희이거나 체력단련인 경우도 있다. 협동심이나 자립심을 기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넓게 보면 다 교육이다. 고무줄놀이나 공기놀이, 윷놀이 등도 모두 그렇다. 어쩌면 예전에는 전쟁을 위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놀이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살아가는 현실이 그랬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놀이는 대부분 스포츠로 바뀌어 있다. 펜싱, 검도, 양궁, 사격, 레슬링, 유도,

태권도 등 많은 스포츠가 자기 단련이나 전쟁 교육이 주목적이었다.

놀이는 즐거운 유희다. 하지만 장난은 종종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아무래도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한 장난은 위험하다. '장난치지 마!' '그걸 장난이라고 해?'와 같은 표현에서 장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장난도 정도껏 해야 한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난 중에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있다. 언어유희라고도 하는데 요즘엔 '아재 개그'의 주 소재이기도 하다. 한편 말장난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서로를 자극하여 끝내 장난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된다. 장난이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남북, 북미 관계가 그렇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장난과 놀이를 보며 느낀 요즘의 단상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Деду Морозу доставят более 100 писем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П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и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в отделении 693020 "Почты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специальный почтовый ящик, в который жители города опускали новогодние письма, рисунки и красочные открытки для Деда Мороза.

Резиденция, где Дед Мороз живет круглый год, принимая у себя в гостях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находится в Великоустюгском районе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Кстати, волонтеры,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Дом Деда Мороза, могут помочь ему на почте — раскладыва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ю по почтовым ячейк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я от Деда Мороза группируется в большие пачки писем,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адресована в один из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се послания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в резиденцию волшебника, а отправители, верно указавшие свой обратный адрес, получат ответ от Дедушки Мороз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очты России".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ие дети написали более 100 писем.

사할린과 홋카이도의 학자, 아이누와 니브호문화를 연구

12월 22일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러시아-일본 학술연구 발전에 대한 협약을 조인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향토박물관과 일본 하코다테국립기술전문대학의 대표자들은 문서에 서명했다. 협력의 목적은 사할린주에서 중세부터의 19세기까지의 고고학 및 민속학 자료를 공동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자들은 주내 고고학 유적지에서 얻은 유리, 금속과 점토로 된 희귀품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분석에 따른 공동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할린 원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는 민속자료와 사진들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서로 연구정보, 출판물 등 교환을 전제로 연구대표자들과 연구결과 의 공동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하코다테국립기술전문대학교 부총장 나카무라 카츠히키 교수를 단장으로 한 일본 전문가 일

동은 주향토박물관의 소장품을 연구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했다. 기술적 연구장비로 이들은 20세기 이전 사할린의 아이누인과 니브호인들이 수세기 거쳐 사용했던 장식품인 유리 구슬과 금속의 화학적 성분과 제작의 특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는 극동지역 민족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을 준 무역 및 문화 교류, 유리 및 금속 장식품의 원산지과 섬지역까지 유입하게 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Ученые Сахалина и Хоккайдо исследуют культуру айнов и нивхов

22 дека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о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музея и колледжа Хакода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Японии. Цель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от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до XIX века.

Стороны планируют совместные работы по изучению и научному анализу раритетов из стекла, металла и глины, полученных 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области. Объек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нут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и снимки, отражающие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обмен нау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публикациями и другими материалами, а также делегациями ученых и совместная публикация результатов работ.

Группа япо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колледжа Хакодате профессора Казуюки Накамура прибы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работы с предметами и коллекциями из фондов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ни планируют исследовать химический состав и особенности изготовления стеклянных бус и металлических украшений, которыми пользова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айны и нивх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еков вплоть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В дальнейшем результаты эт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могут проследить источник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остров стеклянных и металл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торгов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заимовлияние.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라직스>치과 클리닉 전용식 원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장기간 지속적으로 새고려신문을 후원하시는 전용식 원장님께 50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귀댁에 행운과 부유함,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항상 성공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귀 병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Уважаемый Ю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50-летием!

Пусть юбилейная сегодняшняя дата В душе Вашей оставит добрый след, Желаем мы всего, чем жизнь богата: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мира, долгих лет.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알립니다!

2018년 1월 6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 결산회의가 소집됨을 알려드립니다.

6 января 2018 г. в 11.00 состоится отчетная годо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СК.

Повестка:

1. Отчет за 2017 г.
2.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3. План на 2018 г.
4. Разное

Оргкомитет

알립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첫 호는 1월 12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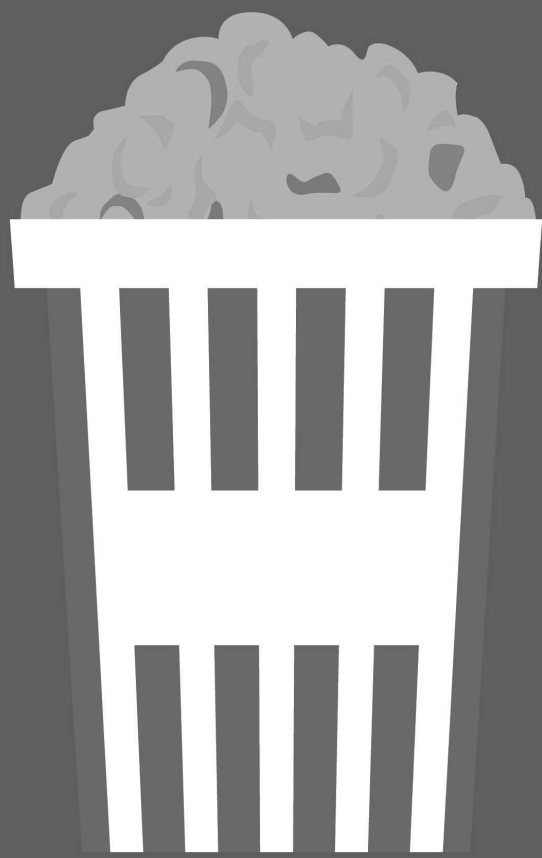
Сообщаем, что перв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в 2018 г. выйдет 12 января.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